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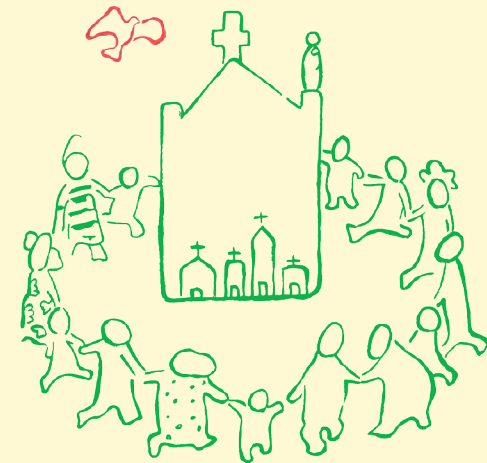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주님 부활 대축일(4월 12일)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요한 20,1-9)



승리하신 그리스도

—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요한 20,1)

우리를 위해 수난하고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아침 성무일도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덤에 갇히셨던 우리 임금님 군사가 엄중하게 지키었던 장엄한 광채 속에 개선하시어 죽음의 승리자로 부활하셨네.”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29장 “알렐루야 노래하자”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요한 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7 예수님의 얼굴을 찼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요한 20,1)

「요한복음서」가 ‘어둡다’고 말할 때는 예수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찾아 올 때는 언제인지 나누어 봅시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한 20,9)

부활 신앙은 바로 주님께서 생명이심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위에서 부활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한 적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최고의 시인 롱펠로는, 부인을 돌씩이나 사별하는 불운 속에 서도, 아름답고 고귀한 글들을 수없이 남겼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되던 어느 날, 한 신문의 기자가 찾아와 “선생은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셨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리도 주옥같은 글들을 뽑어낼 수 있으셨습니까?”라고 묻자, 롱펠로는 앞마당에 있는 고목이 되어버린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옵시다. 죽은 듯 보이는 저 나무에서는, 해마다 새 가지가 나와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죽은 십자가 나무에서 부활의 꽃이 피었듯이, 나의 고통은 나에게 새로운 꽃과 열매를 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십자가 나무에서 부활의 꽃이 피듯, 깨어진 알에서 날개 달린 새가 나오듯, 부활은 우리에게 자신을 바치고 죽게 하는 아픔을 요구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34장 “거룩하다 부활이여”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4월 19일)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 20,19-31)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
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7-28)

믿기를 거부했던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비로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
님, 나의 하느님! 주님은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뺨속까지 파고드는 절절한 고백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을 증언합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4장 “평화를 주옵소서” 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요한 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
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
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
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
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
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
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
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
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
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



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뚫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의심은 인간의 것이고 평화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셔야만 평화는 가능해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28)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하고 예수님께 고백한 체험이 있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부자 한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대형 유람선을 타고 유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승객이 많아 그는 누군가와 함께 방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게 된 사람이 도둑 같아 보이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귀중품을 챙겨 들고 아래 선실로 내려가서 그 배의 사무장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좀 맡기고 싶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함께 방을 쓰는 사람이 영 믿음직스럽지가 않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맡아드리지요. 그분도 벌써 맡기고 갔는걸요.” “그런 사람들을 한 방에 묶어 놓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신이 깊을수록 불행도 깊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은 끊임없이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해 별의별 트집을 잡아 다투는가 하면 정도가 심하면 외출도 못 하게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자꾸 따지고 들면 의심이 커지고, 반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토마스 사도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신이 확신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5장 “사랑의 하느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열정이 반말한 개나리구역

—가음동본당 개나리구역장 정의근 베드로—

저희 가음동본당은 창원 용지공소로 출발하여 지금의 위치에 자리를 잡았고, 공단지역의 활성화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파동본당, 대방동본당, 양곡본당을 분가시켰습니다. 노령화와 냉담교우의 증가로 최근의 미사참례 교우는 약 450여 명 내외입니다. 주임신부님(유해욱 요아킴)의 사목방침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만들기로 특히 소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많아 반,구역장 월례회에 꼭 참석하십니다. 본당 재건축 준비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반, 구역장 사기 진작을 위해 야유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소공동체는 15구역 30개 반으로 조직되어 있고, 본당 차원의 미사안내, 차 봉사, 청소 등을 즐겁고 활기차게 담당합니다.

그중에서 개나리구역은 임대, 소형 아파트 및 주택가가 혼합된 구역으로 5개 반이 있는데 반모임보다 구역모임이 더 활성화된 구역입니다.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지고, 5월은 성지순례 또는 피정, 7월은 야외 모임, 12월은 송년회를 합니다. 매년 11월 구역모임에서는 다음 해 월별 모임 장소를 자발적으로 확정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려고 해서 이때는 구역장이 교통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모임은 남성구역장의 진행으로 복음나누기 7단계를 철저히 하며, 활동은 입교 권유, 냉담자 회두 및 이웃 돌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역에 연로하시고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 성령봉사회 봉사를 오랫동안 해 오신 여성구역장이 방문기도와 교육, 피정을 담당합니다.

한 자매님은 반장직을 한사코 마다하셨지만 맡은 후부터는 천사가 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반원들의 가정에 손수 음식을 마련하여 방문하십니다. 반장 두 분은 본인들도 편찮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고, 구역 총무를 겸하고 있는 한 분은 이벤트의 달인입니다. 단체로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걱정은 구역장 몫, 해결은 이분 몫입니다. 한 반은 오랫동안 반장이 공석이였지만 이번에 70세가 넘으신 형제님이 맡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당의 여러 일에 우리 구역은 항상 많은 인원이 참여합니다. 연도가 공지되면 반장이 참석인원을 파악하고 구역장은 그에 맞게 차량을 수배하여 조금의 불편도 없게 합니다. 성당 청소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우리 발자국 때문에 다시 청소를 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빈첸시오회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구역이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빈 병 모으기를 시작한 지 4년, 수집한 병은 구역장 주도로 현금으로 바꿔 그간 약 180여만 원 정도를 빈첸시오회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입교 권유와 냉담자 회두에 구역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가족, 이웃들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소공동체 선교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

2. 소공동체 선교활동

4) 열심히 하지 않는 신자들을 위한 선교활동

주일미사 참례는 하지만 소공동체 모임이나 행사에는 소극적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공동체 활동은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체험을 통하여 굳건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이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강제적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소공동체의 소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소공동체에서 하는 봉사 활동 등에 동참을 유도하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한다면 열심히 신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할이야말로 냉담을 방지하는 활동이며 공동체를 재복음화 하는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5) 입교 대상자를 위한 선교활동

본당의 선교 시기와 연계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소공동체에서 매년 입교자의 목표를 세우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활동하는 특별 선교기간을 계획하여 활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결속과 유대감을 강화시키며 선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활동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일깨워 주고 살아있는 소공동체와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